



최다 참가·창작 초연... 제주 연극 봄날 오나요

26회 제주연극제 오늘부터 5일 동안 문예회관 대극장 대한민국연극제 예선 겸해 예술공간 오이 등 5팀 공연

제주 연극인들이 창작극으로 새봄 무대를 빛낸다.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 주관으로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26회 제주연극제다.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예선을 겸한 이번 연극제는 '제주 연극의 봄날'을 기대하게 만든다. 역대 최다 극단이 참가하는 데다 대부분 창작 초연작을 출품하며 모처럼 제주 관객들에게 열정과 의욕을 보여준다. 참가 극단은 공연 날짜순으로 극단 파노가리, 퍼포먼스단 몸짓, 예술공간 오이, 가람, 세이레 등 5팀에 이른다. 그중 퍼포먼스단 몸짓과 예술공간 오



제주연극제 마지막 날 공연하는 극단 세이레의 '주천강 별곡' 연습 장면.

이는 제주연극제 참가가 처음이다. 극단 파노가리는 '발자국'(문무환 작, 연출)을 준비했다. 자신의 의처증 때문에 도피한 아내가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상경하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퍼포먼스단 몸짓은 '코마(COMA)'(강종임 작, 연출)를 초연한다. 무의

파를 소멸시킬 수 있는 신력을 가진 명이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 진실과 거짓에 대한 혼란을 겪는 내용으로 극이 펼쳐진다. 예술공간 오이는 '일곱개의 단추'(전혁준 작, 연출)로 제주연극제와 첫 만남을 갖는다.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들로 내리친 주인공 할머니의

삶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드러나고 제주4·3의 비극이 스며든다.

극단 가람은 '종이비행기'(이상용 작, 연출)를 제주연극제에 처음 올린다. 노모 부양 문제로 다투는 아들과 며느리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암 환자 고숙희를 중심으로 풀어 간다.

극단 세이레는 '주천강 별곡'(정민자 작, 연출)을 선보인다. 세이레가 이전에 공연했던 '자청비'를 80~90% 대폭 각색한 작품으로 해와 달 그리고 별이 들려주는 자청비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체상 최우수상은 7월 17~8월 8일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 개최하는 39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제주 대표로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단체·개인 부문 수상 결과를 공개하는 시상식은 연극제 마지막 날인 이달 28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예정됐다.

관람료는 무료. 코로나19에 따른 좌석 띄어앉기로 매회 130석 이하의 객석만 개방한다. 문의 755-0904. 전선희기자

문예회관 전시실 전문 예술인 홀대 논란

수요 증가에 3곳 늘렸지만 전공 작가 전시 보장 안 돼 운영위 대관 심사도 허접 우선 대관은 서예가 많아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이 전문 예술인을 홀대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 증가에 전시실을 3개까지 늘렸지만 정작 시각예술 분야 전공자들의 전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미술학과 교수, 강사가 참여하는 연례전이 대관 심사에서 떨

어지는 등 2021 문예회관 전시실 정기대관 사전예약 확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2021년 1~3 전시실 대관 신청 건수는 114건(미술 63, 서예 33, 사진 18)이었고 그중 73건(미술 37, 서예 22, 사진 14)만 통과했다. 탈락 건수는 1전시실 24건, 2전시실 16건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던 미술 장르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심사 없이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는 우선 대관(미술 5, 서예 14, 사진 2, 건축 1)에선 서예 장르가 미술을 앞질렀다.

문예회관 전시실은 전년도에 다음 해 대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대관을 확정한다. 도문화진흥원은 홈페이지에 "전문예술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한다고 했는데, 대관 규정에는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명시됐다. 문예회관 운영위는 현재 당연직인 도문화진흥원장과 위촉직 13명(미술 2, 서예 2, 사진 1, 연극 2, 음악 2, 무용 2, 경영 1, 관광 1) 등 14명으로 짜였다.

이 때문에 공연예술인까지 포함된 문예회관 운영위가 전시실 대관 심사까지 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 있다. 대관 규정에 밝힌대로 개인전은 전시·수상 경력, 전시 계획서, 도록 등을 참고하고 단체전은 수준높은 기획전을 우선순위로 심사한다면 전시 분야 인력으로 별도 심사위원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도내 한 미술인은 "제주에 문화공간이 많다고 해도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곳은 의외로 적다"며 "제주도에서 3개나 운영하는 문예회관 전시실마

지 전문 작가들이 설자리가 없다. 적어도 1전시실은 전공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좋고 인지도가 높은 문예회관 전시실이 대관 위주로 가동되면서 도문화진흥원의 기획력이 보이지 않는 점도 한계다. 몇 년 전부터 학예직도 배치하고 있지만 제주청년작가전을 제외하면 문예회관의 성격을 드러내는 전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1주일 이내로 전시 일정을 잡았던 제주청년작가전은 지난해에야 2주로 늘었다.

도문화진흥원 측은 "미술계를 중심으로 대관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다만 동호인들의 대관 수요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동백꽃으로 제주4·3을 기억합니다"

해녀박물관 사진 전시 동백꽃 매달기 체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해녀박물관이 제주4·3 73주년을 맞아 이달 23일

부터 4·3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월 30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해녀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4·3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스러지며 4·3을 상징하는 꽃이 된 동백꽃 사진전, 박노해 시인의 시 '동백꽃은 세 번 피지요', 동백꽃 매달기 체험 등으로 짜여졌다.

동백꽃 사진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이창훈)와 제주사진연구 모임인 '제주 인 포커스'의 후원으로 전시되

고 있다. 동백꽃 매달기 체험은 해녀박물관 직원들이 펠트지를 이용해 직접 만든 동백꽃에 관람객들이 추모의 글을 걸어 전시 공간에 직접 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체험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참가자에게 제주4·3평화재단의 협조로 동백꽃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립환관

<246>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맨. "지실광 집처럼 먹으면 막 맛 좋단게. 제주신화 이악이 중이서 오닐은 '가문장'이 '제주신화 이야기'. 제주교육박물관 발행> 이악을 하여 주마. 이 이악은 신화영 골맨. 제주 큰굿할 때 삼공본풀이 하는 중 삼공을 맞이하는 디서 볼러명 이악하는 거여." <어떻게 골맨, "하르바지, 큰곳은 어떻게 하는 거우파?" 하르바지 골맨. "큰곳이영 하는 건 곳을 막 크게 벌리는 것이어. 똥 밭을 사름덜도 하영 모다들곡 해주. 상에 음식덜도 하영 출렁 삼공이영 혼신이 하늘서 내려왕 밭을 사름덜 똥 걸리지 말앙 똥안하게 하여출생 비똥하는 것이어.">

* 제주어 풀이

- * 제주신화 이악 : 제주신화 이야기.
- * 이악을 하여 주마 : 이야기를 해 주지.
- * 큰곳 : <이름> 제주 무속에서 곳의 규모나 제사에 따라 '큰곳'과 '작은곳'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대체로 규모를 크게 치러지는 곳.
- * 맞이하는 디서 : 맞이하는 데서.
- * 이악하는 거여 : 이야기를 하는 거지.
- * 어떻게 하는 거우파? : 어떻게 하는 거예요?
- * 똥(똥) : <매김> 다른 관계없이 다른, 똥.
- * 하영 모다들곡 해주 : 많이 모여들기기도 해.
- * 똥 걸리지 말앙 : 똥에 걸리지 말고.
- * 하여출생 : 해 주세요하고.
- * 비똥하다(비두에 하다) : <음직> 소원을 빌다.

고재만 화백

예당 한문연 교육 선정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최근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서귀포예술의전당은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서양 악기 탐험'과 '마음에 흐르는 미술 로드'를 운영한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는 성인 대상 감상형('오페라탈라', '재미있는 미술세계사')와 체험형('제주춤아카데미-해녀·물허벅춤')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측은 "음악, 미술, 무용 프로그램이 선정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물관 속 갤러리 '뽕디왓'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실시한 '박물관 속 갤러리' 공간 명칭 공모 결과 김원순씨가 응모한 '뽕디왓'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16건이 접수됐고 지난 18일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결정했다. 최우수 작품에 오른 '뽕디왓'은 너른 평지의 땅을 의미하는 제주 방언인 '뽕디'라는 말을 사용해 '전시 공간도 뽕디왓처럼 넓고 큰 장소에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수상은 '보고젠(강소미)'과 '갤러리 훈디(유호진)', 장려상은 '오소록하니(이정미)', '오소록한 공간(진도아)', '작산 갤러리(김순영)'가 각각 뽑혔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 제10-2078975호

-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받은 바림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